

매너교육을 위한 UCC 콘텐츠 활용제안

남숙희^{1*}

¹청주대학교 유럽어문학부

The suggestion on the application of UCC contents

Sukhee Nam^{1*}

¹Division of European Language & Literature, chongju University

요 약 매너교육은 단순한 지식적 이론 전달이 아닌 실천 중심의 실용 가치를 지닌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매너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학습도구로서 UCC 콘텐츠의 활용을 제안하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UCC콘텐츠를 활용한 매너 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그리고 성취도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제작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매너 의식이 고취되었으며, 매너를 고려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롭게 시도된 UCC 콘텐츠는 매너교육에 유용한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매너교육의 기초 자료로서의 다양한 UCC의 활용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education on manners[etiquette] is necessary to have pragmatic value centered on practice, not merely deliver knowledge or a theory. For this purpose, it is required to develop various teaching methods for its revitalization. This study is to suggest UCC contents as the most suitable learning tool and to show the cases. The education on manners using UCC contents has positively influence on students' interest in class as well as the improvement in achievement, and attracts their attention. Also it inspires students' sense of manners through the practical exercise and results in the positive change of their behavior. Therefore UCC contents attempted newly are considered to be a useful learning tool and for this reason, I offer them as basic data for the education of manners.

Key Words : Manners, etiquette, UCC, contents

1. 서론

오늘날 끊임없이 불거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더욱더 예절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덕목인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예절과 인격으로까지 평가되는 매너에 대한 가르침을 학교 교육에 기대하게 되었고, 실제로 매너 교육은 일부과목이나 특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 더욱이 취업과의 전쟁이라는 현실과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매너과목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매너 교육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강 신청 시 보여주었

던 관심과 학습의지와는 반대로 막상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매너과목 수강에 대한 목적의식마저 상실케 하는 등 수강생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영상물과 매너관련 서적들을 활용한 다양한 P.P.T교육 자료들이 제작되어 사용 되고 있다. 시청각 자료로는 각종 TV 제작물[2] 등의 동영상이나 매너 관련업체들이 제작한 영상물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복장과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매너로서의 명함 교환의 방법, 인사 그리고 테이블 매너와 같이 실습이 요구되는 주제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주제 발표, 주제 시연을 유도한 실습수업도

*교신저자 : 남숙희(shnam99@hotmail.com)

접수일 10년 10월 29일

수정일 10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10년 11월 19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제 시연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시연을 부탁하면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행동을 보여주어 오히려 수업의 흐름을 깨거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초래되었다.

강의자는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갖도록 유도하고 학습에 관한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교수매체의 제시 기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3]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상문화 세대인 21세기 학생들에게 변화된 사회의 필수요건인 “매너”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감 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서 출발하였다.

21세기 학생들은 영상 문화 세대이다. 웹기반 2.0의 등장으로 인터넷은 생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생활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각적인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무시한 강의는 오히려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마저 있다. 기존의 “보수적”인 주입식, 강의식 교육방법은 더 이상의 교육효과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UCC 콘텐츠의 활용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시에 실습교육으로서의 매너 교육에 효과가 있으리란 예상에서 출발한 사례제안이다.

2. 매너 교육에 UCC 콘텐츠 활용의 필요성

매너는 단순한 지식 전달과 사고 중심이 아닌 행동 중심과 실천 중심을 강조하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너는 몸에 익숙하게 하는 사회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매너 교육은 실습 교육의 병행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학습 기자재의 효과적인 활용 모색이 필요하다[4]. 학생들은 매너 수업에 있어 이론적인 학습을 통한 지식 전달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실습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었을 경우 수강 후 만족도가 사전 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이미 연구 자료로도 밝혀진 바 있다[5]. 이러한 의미에서 매너를 주제로 한 UCC 콘텐츠의 활용은 주입식, 강의식 수업에서 얻는 내용 이상을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UCC 콘텐츠의 활용은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촬영과 연기에 참여하면서 생활 속 실천

하는 매너를 체험하도록 하는 실습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UCC(User Created Content)는 아주 친숙한 매체이다. 학생들은 개인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등에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들을 올려 타인들과 공유하는 일은 평범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따라서 UCC콘텐츠는 UCC에 익숙하고 친근한 21세기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너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학습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매너 교육에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UCC를 활용한 매너교육

3.1 시청각 자료로서의 UCC 활용 사례

매너관련 UCC는 유튜브¹⁾[6]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캠페인 관련 제작물과 개인의 제작물 등이 공유되고 있다. 강의자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현실감 있는 자료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캠페인성 UCC와 패러디 UCC를 활용자료로 선정하였다.

- 1) YouTube : 가장 인기 있는 무료 동영상 전문 공유 사이트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사용자가 영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다. 2005년 2월에페이팔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Chad Meredith Hurley, 현 유튜브 CEO), 스티브 쉰(Steve Shih Chen), 자워드 카림(Jawed Karim, 퇴사)이 공동으로 창립하였다. 사이트 콘텐츠의 대부분은 영화와 텔레비전 클립, 뮤직 비디오이고 아마추어들이 만든 것도 있다. (위키백과 인용)

3.1.1 매너관련 UCC 캠페인

매너의 유래는 그 어원은 캠페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에티켓에서 시작되었다. “짐이 곧 국가다”를 외치며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17세기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귀족과 지방의 영주들로 인해 자신의 세력이 붕괴되지 않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해결책으로 그들을 베르사이유로 불러 생활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베르사이유 궁전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수천수만에 이르는 궁의 방문자와 상주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하고 볼일을 보기 일쑤였다. 궁에서 가장 피해가 큰 장소는 당연 정원이었다. 그러나 이

정원은 왕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며 직접 외국의 정원사를 초빙해 가꿀 정도로 강한 애착을 보인 장소로도 유명하다. 결국 짓밟히고 망가져 가는 정원의 모습에 정원사는 정원 보호를 호소하는 꼴말을 세우게 된다. 처음엔 그 누구도 꼴말엔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어느 날 그를 지켜본 귀족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은 물론이며 자신의 식솔들에게도 주의를 주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그의 호소문을 따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etiquette”은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란 단순한 꼴말을 뜻하는 어원에서 “에티켓을 지키다” “에티켓을 따르다”라는 표현으로까지 발전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정원”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게 해석하여 “예의범절”이란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7]. 여기서 우리는 매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주길 권하고, 함께 따르고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캠페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료 시청 이전에 매너의 유래와 UCC 캠페인 활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학습도구로는 UCC 캠페인 자료로서 캠페인 성격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항공사 제작 UCC를 선정, 활용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걸맞게 다양한 에티켓 캠페인 UCC들이 제작, 소개되고 있다. 그 중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기내와 여행지에서 지켜야 할 “글로벌 에티켓”을 제작하였으며, 이중 아시아나 항공은 애니메이션 제작물을 기내에서 상연하였다.



아시아나 글로벌에티켓 대한항공 글로벌 에티켓

UCC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여행 시 지켜야할 에티켓의 내용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이 주제와 연계되는 교통수단 이용매너,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 시 필요한 관람매너 등의 학습도 병행하게 된다. 기존의 시청각 자료들은 대부분이 20분이상의 분량으로 제작되어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시청 효과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UCC 동영상은 3분 이내의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집중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시청 후 부연 설명 시 학생들은 시청한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강의자의 내용전달과 학습자의 이해도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국내 여행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여행관련 매너를 주제로 한 UCC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

에게 자연스럽게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으로 성장해야 함을 인식시켜 줄 수 있었다.

3.1.2 매너 관련 UCC 패러디

패러디를 통해 매너 주제를 다루고 있는 UCC로는 노래, 영화, 광고, 코믹영상 등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패러디하여 매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UCC로 선정했다. “터미네이터”, “식객”, “서브웨이 1.2.3” 등 흥행 성공이나 잘 알려진 영화를 패러디한 UCC를 선정 학습도구로 선정했다.



패러디 UCC는 시청각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앞선 캠페인 UCC와 유사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재미있게 재구성한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이 패러디 UCC를 통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영화관에서의 관람 매너는 물론이며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에티켓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었다.

시청각 자료로서의 UCC 콘텐츠의 활용은 기존의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시청각 자료의 사용 시 느낄 수 있는 내용의 진부함이나 현실성과의 괴리감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2 UCC 제작 참여를 통한 매너 실습

“사람들이 교실 밖에서 얻는 지식의 양은 교실 안에서 보다 많다”고 한 제이 크로스[8]의 말처럼 학생들은 UCC의 직접 제작에 참여하며 실천하는 매너의 경험을 통해 강의실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보다 더 생생한 생활 속 매너를 체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의자는 UCC 제작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UCC 제작을 유도하되, 보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강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이외의 매너 관련 주제 선택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 제한 때문에 강의 시간엔 주제 선택, 제작 방법에 대한 간단한 방향만을 제시해 준 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3.2.1 제작 구상

조 구성 시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과 학우들이나 이미 안면이 있는 친구들과끼리 조를 편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수강인원의 5%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융합이었다. 이들은 평소 언어 소통 문제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나 UCC제작과제는 한국학생들로 하여금 외국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던 사이였지만 한국학생들은 외국인 학우들에게 함께 과제를 진행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하고, 친절한 설명과 배려의 자세로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의견 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절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이 잘 맡아서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다[9].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매너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양식이라는 매너의 기본 개념을 몸소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3.2.2 제작방법과 주제설정

제작 도구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 전화기의 동영상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매너나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해 주제를 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3 제작 후 학생들의 반응

UCC를 제작한 후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첫째 UCC를 직접 제작해 보는 경험은 흥미로웠으며 새로운 학습방법이었다. 둘째 UCC 제작 과정은 매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촬영을 위해 매너 관련 내용을 직접 연기해 봄으로써 매너 실천의 필요성을 더 한층 공감할 수 있었으며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다. 반면, 혼자가 아닌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원간의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부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직접 연기를 한다는 점과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인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주어진 강의시간 이외에 과제로 주어진 실습의 형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보고서 작성보다 더 요구되는 시간이 부담스러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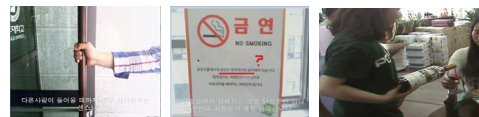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과제

물은 다소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이었다.

3.2.4 UCC제작 결과물

2주간의 제작 시간이 지난 후 UCC 제작물을 받아보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주제는 공공장소 매너(37%)였으며, 식사와 와인 등 레스토랑 매너(30%), 인사와 비즈니스 직장매너(13%), 기타(1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생활에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매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주제로 채택하였다고 답하였다.

UCC 제작 과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작과정과 마찬가지로 제작된 자료를 함께 시청하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보기 힘든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이 제작한 UCC를 시청하는 학생들은 칭찬과 지적 등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UCC 제작은 흥미도와 참여 학습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Heinich에 의하면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의 90%, 보고들은 것의 50%, 보기만 한 것의 20%, 읽기만 한 내용의 10% 정도만 장기 기억장치에 저장한다고 한다[10]. 제작 과정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추억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제를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매너관련 지식들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차후 대인관계와 매너를 실천하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CC제작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매너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UCC제작을 통해 매너교육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전달로서의 교육이 아닌 습관화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4 UCC 콘텐츠 활용 효과

보다 구체적으로 UCC 활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수강 초반 강의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UCC 활용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강좌와 매너 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주차별 강의 진행시 UCC 동영상을 학습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 학생들을 UCC 제작에 참여토록 한 후 그들의 변화된 의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청주대학교 “현대인과 국제매너”수강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총 7문항의 내용으로 구성하

였으며, 각 문항은 “1)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지 않다 5)그렇지 않다”와 같이 5점으로 측정하였다.

설문내용

- 1) 교과 진행 방식이 흥미로울 것이다.
- 2) 강의 내용이 흥미로울 것이다.
- 3) 학습의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 4)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5) 강좌 선택에 만족한다.
- 6) 수강의 자신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수강 후: 변화가 있었다)
- 7) 수강 이전 이미 매너에 관심이 있었다.
(수강 후 매너에 관심이 높아졌다)

문항	응답(UCC활용 전)					전체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진행	1.6%	10.1%	41.7%	29.5%	17.1%	100%
흥미	.8%	4.7%	24.2%	42.2%	28.1%	100%
성취	.8%	7.0%	38.8%	36.4%	17.0%	100%
도움	.0%	5.5%	16.4%	44.5%	33.6%	100%
선택 만족	2.3%	4.7%	23.4%	37.5%	32.1%	100%
행동 변화	.8%	11.7%	38.3%	28.9%	20.3%	100%
관심	3.1%	16.5%	29.2%	30.7%	20.5%	100%

문항	응답(UCC활용 후)					전체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진행	1.6%	11.0%	24.4%	32.3%	30.7%	100%
흥미	.8%	6.3%	19.7%	31.5%	41.7%	100%
성취	1.6%	5.5%	20.5%	34.6%	37.8%	100%
도움	.8%	.8%	12.6%	33.1%	52.7%	100%
선택 만족	.0%	3.9%	18.3%	35.7%	42.1%	100%
행동 변화	.8%	4.7%	20.8%	38.4%	35.3%	100%
관심	.8%	1.6%	20.5%	37.8%	39.3%	100%

설문조사 결과 학습 동기, 흥미와 관심에 대한 수강 전의 학생들의 기대치는 수강 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생들의 수강 전

후에 대한 행동변화 기대치에 대한 조사이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매너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만 있었을 뿐, 행동변화에 대한 기대는 다소 미미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UCC콘텐츠를 활용한 매너 강의를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UCC 제작과정의 경험은 자신의 행동변화에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의견을 적어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UCC의 활용과 제작경험이 실용학문을 목표로 하는 매너 수업에 효과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매너 의식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4. 결론

영상매체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디지털 영상 문화 시대로의 변화로 끊임없는 새로운 교육법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11]. 이에 설문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UCC 콘텐츠를 활용한 매너 교육은 시각적 욕구 충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욕구와 흥미 증가뿐만 아니라 행동변화와 성취도에 있어서도 만족할 결과를 주었다. 또한 UCC의 제작을 위해 직접 주제를 찾고 촬영 방법을 구상하고 촬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너 교육은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실용학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교실 밖에서 얻는 지식의 양은 교실 안에서 보다 많다”[12]고 한 제이 크로스(2003)의 말처럼 UCC를 활용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매너는 생활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15~16주란 정해진 기간에 계획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선 학생들은 UCC공유 자료를 찾아 시청하는 시간보다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더 즐겁게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직접 제작한 UCC를 통해 공유할 수 없었다. 시간의 부족으로 단지 몇 작품을 선정해 강의 중 공유했을 뿐 학생들이 제작한 UCC작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피드백의 기회가 부족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대학교 교양과목 수강생들에 국한되어 다양한 집단 간의 표집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밀도 있고 체계화된 연구로의 발전을 다음 수행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새롭게 시도된 UCC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매너교육의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교육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1] 이영금, “대학생의 예절 및 매너교육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성대학교 학위논문, 2005
- [2] MBC 스페셜, “첫인상, 인생을 좌우한다.” 2009-01-04 방송
- [3] 나승일, “대학에서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81
- [4] 이길표, “학술 사회교육으로서의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상논집 36, 1998
- [5] 김연화, 이정우, “대학생의 생활예절교육 실체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 연구지 제 11권, 제2호, 1996
- [6] <http://www.youtube.com>
- [7] 박찬표, “매너의 역사, 세련화인가? 아니면 본능적 층동의 억압인가?”, 서양사학연구 제11집, 2004, p.85
- [8] 김창수 외 다수,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청람, 2009, p.250 재인용
- [9] 정호정, “대학생의 예절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연대석사학위 논문, 2004
- [10] R.Heinich & M. Molenda, “Instructional media and technologies for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s-Hall Inc, 1998
- [11] 오현화, “영상문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6
- [12] 김창수 외 다수,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청람, 2009, p.250 에서 재인용.
- [13] 류미현, 엄문자, “매너 교육이 대학생들의 매너지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생활문화 학회지, 제6권, 제2호, 2003.
- [14] 백영균 외 다수, “유비쿼터스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2006.

남 숙 희(Sukhee Nam)

[정회원]



- 1991년 2월 : 충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 2000년 1월 : 프랑스 루앙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 2009년 ~ 현재 : 공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출강

<관심분야>
사회 교육, 문화